

《경제학 콘서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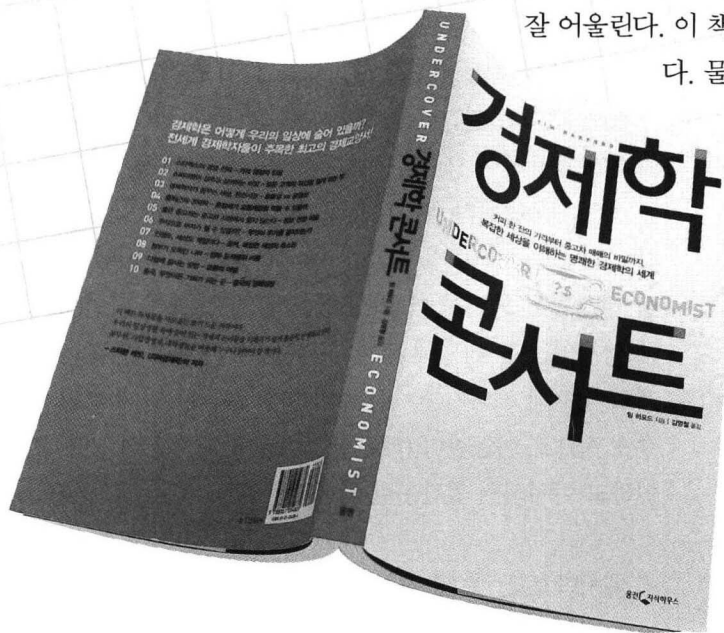
경제학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현상에 접근하려는 자유롭고 유연한 저자의 자세

글_ 최용식

이 책은 번역본의 제목을 참 잘 지었다는 생각을 들게 한다. 상업적으로 그렇다는 말이다. 책을 써서 생활해야 할 필자로서는 이런 점이 먼저 눈에 들어온다. 그러나 경제학적으로는 《Undercover Economist》라는 원서의 제목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린다. 이 책은 현대의 주류 경제학과는 좀 거리가 먼 편이기 때문이다. 물론 추천사를 쓴 사람들은 이 책이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처럼 서술한 것은 사실이다. 예를 들어, 컬럼비아 대학 경제학 교수인 바그와티는 “경제학이 우리 실생활에 얼마나 유용하고 매력적인 학문인지 확실히 알고 싶다면, 재치와 통찰력이 넘치는 이 책을 꼭 읽어보기 바란다”라거나, 조지메이슨 대학의 코웬 교수는 “이 책은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입문서가운데 최고다”라고 썼다. 그러나 이건 현대 경제학의 한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경제학자가 입에 올릴 찬사는 결코 아니다.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의 대부분이 경제학 교과서가 가르치는 바와는 거리가 멀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 책이 경제학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장이나 마 소개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극히 부분적인 내용만을

담고 있다. 오히려, 주류 경제학의 이론을 끌어들이며 엉뚱한 결론을 유도하는 경우마저 있다.



(경제학 콘서트)
팀 하포드 지음 | 김명철 옮김 |
웅진지식하우스 | 350쪽 |
값 3,000원

●이 글을 쓴 최용식은

전남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5년간 대한투자진흥공사에서 근무했다.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과학적으로 해체하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세우겠다는 뜻을 품고 직장을 그만둔 뒤 30년 넘게 이 문제에 천착했다. 현재 21세기경제학연구소(www.taeri.org)를 운영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글쓰기 작업을 하고 있으며 쓴 책으로는 《사상과 경제학의 위기》 《경제역적들이 들어라》 《대한민국 생존의 속도》 《대한민국 생존의 경제학》 등이 있다.

예를 하나 들어보자. 이 책의 첫 장은 ‘스타벅스의 경영전략’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얘기가 실려 있다. 즉, 스타벅스의 “커피에 붙는 마진은 약 150퍼센트다. 1달러짜리 드립커피를 만드는 비용은 40센트이며, 2.55달러짜리 스몰라테의 원가는 1달러 미만이다. 그렇다면 누가 이런 많은 돈을 벌고 있을까(중략) 스타벅스의 가장 큰 장점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출퇴근하는 길목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저자는 이런 현상을 토지의 생산성 차이가 지대를 낳는다는 고전과 경제학자 리카도의 ‘차액지대설’로 설명한다. 수요가 증가하면 생산성이 떨어지는 토지도 생산에 참여하고, 그 결과 생산성의 높은 토지는 생산성의 차이만큼 임대료를 받게 된다는 이론이 그것이다.

이런 서술방법은 마치 현 경제학으로 경제현상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지만, 이것은 올바른 접근자세가 결코 아니다. 스타벅스가 커피 값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것은 그 지리적 이점 때문만은 아니기 때문이다. 스타벅스의 거품을 올린 커피는 물론이고, 커피숍 전체의 분위기나 판매 점원도 차별성과 수월성을 충분히 갖췄다. 그런데 현 경제학은 품질에 대해 어떤 해명도 하지 못한다. 그래

서 얼렁뚱땅 “스타벅스가 카푸치노 한 잔에 그토록 큰 마진을 붙여 팔 수 있는 것은 커피나 직원들의 질이 아니라 오로지 매장의 위치 때문이다”라고 결론짓고 말했을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경제학자가 취할 태도는 결코 아니다. 품질을 포섭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가격이론을 수정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그렇다고 이 책이 읽을 가치가 없다고 말하지는 것은 전혀 아니다. 이 책에서 필자가 특별한 감흥을 받은 것은, 현 경제학에 얽매이지 않고 경제현상에 접근하려는 자유롭고 유연한 저자의 자세이다. 사실, 이 책의 원서 제목을 우리 어법에 맞게 번역하자면, ‘경제학자의 염탐’ 정도가 아닐까 한다. 그렇다면 이 책의 제목에는 경제학자가 남몰래 경제현상을 엿본 것을 기술했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경제학의 정통이론에 입각하여 경제현상에 접근하지 않았다는 점을 저자는 이 책의 제목에 은밀하게 포함시켰던 셈이다. 필자는 이 점을 높이 사고 싶다. 우리나라 경제전문가 세계에서는 이런 자세를 좀처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나 각종 경제이론들을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경제전문가들은 경제현실이 아니라 경제이론을 우선시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자세는 가끔 엉뚱한 경제해석을 낳고, 이것이 경제정책의 심각한 실패를 부르기도 한다.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자.

지난 2001년에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기침체를 겪은 바 있다. 그러자 정책당국은 환율을 떨어뜨림으로써 수출을 촉진하고, 수출증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자 했다. 이것은 현 경제학의 가격이론이 가르치는 바에 따르면, 훌륭한 경제정책처럼 보였다. 그래서 연말에는 환율을 1,326원으로 떨어뜨림으로써, 우리 원화가치를 무려 12.4%나 하락시켰다. 수출가격을 그만큼 내릴 수 있게 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론상으로는 수출이 크게 증가했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의 수출은 오히려 12.7%나 줄었다. 혹시, 해외수요가 감소해서 우리 수출이 감소했던 것은 아닐까? 물론 당시에는 해외경기가 대체적으로 부진했었다. 미국의 성장률은 0.8%에 불과했고, 일본도 0.5%에 불과했으며, 유럽도 대체로 다른 해에 비해 성장률이 낮았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나라들이 플러스 성장을 한 것도 사실이므로, 수출이 -12.7%나 줄어들 상황은 아니었다.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해야 했으며, 환율이 올랐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수출은

더 늘어야 했다. 그런데 왜 수출은 감소했던 것일까? 이때에만 이런 특이한 일이 벌어진 것도 아니다. 외환위기 이후에는 환율이 떨어질 때 즉 원화가치가 오를 때에는 수출이 증가하거나 호조를 보였고, 환율이 오를 때 즉 원화가치가 내릴 때에는 수출이 오히려 감소하거나 부진을 보이곤 했었다.

1998년에는 우리 원화가치가 32.4%나 크게 떨어졌지만 수출이 오히려 감소했다. 반면에, 원화가치가 크게 오른 뒤에는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1999년에는 원화가치가 17.6% 상승했고 다음해에도 5.2%가 상승했는데 2000년 수출은 17.6%나 증가했다. 2002년 하반기 이후에도 원화가치가 지속적으로 상승했으나, 수출은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2005년에도 원화가치가 11.8%나 추가적으로 올랐어도 수출은 여전히 호조를 보였다. 이런 특이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 경제학은 ‘가격이 수요를 결정한다’고 가르치지만, 이것은 반쪽의 이론일 뿐이다. 가격 이외에도 수요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이 하나 더 있다. 그것이 바로 품질이다. 품질이 좋아지면 가격이 올라도 수요는 오히려 많아진다(품질이 낮아지면 가격이 낮아져도 수요는 오히려 감소한다). 우리 수출에 있어서도 품질이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다.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엉터리 경제정책을 펼쳤고 엄청난 국민경제적 손실을 남기고 말았다.

만약, 2001년에 정부가 환율을 떨어뜨리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수출은 최소한 현상유지라도 했을 것이므로,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감소 규모는 최소 약 180억 달러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우리 돈으로 25조원에 가깝고(2000년 연평균 환율 1,131원 X 219억 달러 = 24.8조원), 부가가치로 따져도 10조원에 이른다(우리 기업의 부가가치비율은 총 매출액의 약 40%). 환율하락이 국민소득을 그만큼 사라지게 한 것이다. 더욱이 국가적 손실은 이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수출은 케인즈의 승수효과는 물론이고 산업의 전후방연쇄효과까지 발휘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들까지 감안하면, 엉터리 환율정책이 국민소득을 최소 30조원 이상은 사라지게 했으며, 성장률을 2% 이상 떨어뜨렸다고 해야 한다. [11]